

## 會計學의 社會科學性에 관한 考察

南 相 午

.....<目 次>.....

- I. 社會科學의 定義
- II. 社會科學으로서의 會計學
- III. 會計學의 學問的 性格
- IV. 會計學과 隣接科學
- V. 結 語

### I. 社會科學의 定義

會計學(accounting)은 社會科學(social science)인가? 會計學이 社會科學이라고 한다면 어  
떤 觀點에서 社會科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會計學이 社會科學이라고 斷定하기 以前에  
우리는 먼저 社會科學에 대한 定義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辭典上 社會科學의 定義를 보면, 셀리그만(Edwin R.A. Seligman)은 「社會科學百  
科辭典」(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을 引用하여 “社會科學은 集團의 一員으로서  
의 個人活動을 다루는 知的 또는 文化的 科學(mental or cultural science)이다”라고 定義하  
였다.<sup>(1)</sup> 한편 웨스터辭典(Webster's New World Dictionary)에 의하면 社會科學을 두 가지  
로 定義하였는데, 하나는 “地域社會(communities)나 家族(families), 部族(tribes)처럼 集團  
을 이루어 함께 생활하는 人間(people)에 관해 연구하는 學問”이고 또 하나는 “史學, 經濟  
학처럼 社會構造(structure of society) 또는 社會構成員의 活動에 관해 연구하는 學問”이  
다.<sup>(2)</sup>

한편 社會科學은 여러 學者에 의해서도 定義되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헌트(Elgin F. Hunt)는 “社會科學이란 人間의 集團生活(group life)을 연구하는 學問이  
다. 社會科學은 社會와 聯關(association)된 人間活動(actions of man)을 연구하며, 人間이

筆者：서울大學校 經營大學 經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助教授

(1) Edwin R.A. Seligman and Albin Hanson,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30) Vol. 1, p.3.

(2)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Second College Edition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72), p. 1351.

生을 영위하기 위한 理解(understandings)와 創意(invention)를 開發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였다.<sup>(3)</sup> 비어드(Charles A. Beard)는 “社會科學은 發展하는 人間社會의 現象(actualities of human societies in development)을 연구하는 學問으로, 이의 社會的 영향(social consequences)과 社會的 相互關係(social relationships)에 관련된 諸活動(activities)이 研究對象으로 된다. 社會科學에는 人間을 위하여 意味있고 有用한 知識(meaningful and useful knowledges)을 얻는 活動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sup>(4)</sup>

金光雄教授는 「社會科學研究方法論」에서 위의 定義와는 다른 觀點에서 定義하였는데 특히 社會科學을 科學哲學(scientific philosophy)과 社會哲學(social philosophy)으로 나누어 定義하고 있다.<sup>(5)</sup> 社會科學이 科學哲學이라는 點은 社會科學이 科學的 論證을 갖는 學問이며 科學의 屬性인 論理的, 決定論的(deterministic), 經驗的으로 證明可能하고, 一般的(general), 簡潔한(parsimonious), 特定的(specific)인 性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社會科學의 方法論의特性을 강조하는 것이다. 社會科學이 社會哲學이라고 하는 점은 러드너(Richard S. Rudner)의 「Philosophy of Social Science」에서 引用한 것으로 “社會科學은 社會現象의 理論을 과악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社會建設問題와 같은 것을 다룬다”로 되어 있다. 따라서 社會科學에서는 Plato의 Republica, Thomas Hobbs의 Leviathan, J.J. Rousseau의 Le Contract Social과 같은 것을 다룬다고 한다.

그외에도 헤링(Pendleton Herring)은 社會科學者의 研究態度와 研究方法論上의 特色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6)</sup>

“社會科學者들은 資料를 體系的, 分析的으로(systematically and analytically) 整理하고, 發見된 것(findings)을 가능한 한 客觀的으로 解釋하려고 한다는 點에서 共通點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또 그는 社會科學의 研究方法論上 特色은 ① 人的・物的 資源의 浪費를 回避하고자 하며, ② 無知(ignorance)로 인하여 발생하는 摩擦(frictions)을 減少시키고자 하며, ③ 挫折(frustrations)과 빗나간豫測(faulty expectations)을 減少시키고자 하며, ④ 狀況에 맞는 代替案의 範圍(range of alternatives)를 合理的・體系的으로 導出하고자 하며, ⑤ 人間의 潛在能力을 具現(realization of human potentialities)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

(3) Elgin F. Hunt, Social Science-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Society

(4) Charles A. Beard, The Nature of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34) pp. 5, 11, 12, 13.

(5) 金光雄：社會科學研究方法論，博英社，1976 pp. 3-16.

(6) Pendleton Herring, "Toward an Understanding of Man," in New Viewpoints in the Social Sciences, Twenty-Eighth Yearbook of the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Roy A. Price, Editor, National Council of the Social Studies, 1958

하고 있다.

위의 社會科學의 定義를 요약하면, 社會科學이란 ① 人間과 社會에 관해 연구하는 學問, ② 人間活動의 向上과 社會發展에 관해 연구하는 學問, ③ 社會科學으로서의 屬性과 研究方法論上の 特性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社會科學의 目的是 人間生活의 向上과 社會發展에 寄與하는 것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Social科學의 正確한 定義는 Social科學의 性격상 명확히 내릴 수 없을 터지 모른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앞에 열거한 여러 學者의 Social科學에 대한 定義에 비추어 會計學의 Social科學性 을 考察하고 Social科學으로서의 會計學의 學問의 性格을 論議해 보고자 한다.

## II. Social科學으로서의 會計學

會計學은 다른 Social科學과 마찬가지로 人間生活과 社會發展에 관련된 學問이다. 이 點은 正統的인 Social科學이라고 생각되어온 經濟學(economics)과 會計學의 學問의 類似性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會計學은 Social科學중에서도 經濟學과 가장 가까운 關係에 있다고 생각된다. 經濟學은 社會의 一員인 人間의 福祉(welfare of man)를 위한 學問으로 오늘날 아무도 “經濟學은 Social科學이 아니다”라고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會計學의 Social科學性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解明晰하게 설명된 바가 없었다. 왜냐하면, 會計는 傳統的으로 去來의 記錄, 分類, 要約, 解釋, 報告하는 機能에 置重하였으며, 최근에는 企業의 經營活動을 利害關係者에게 傳達하는 會計情報로서의 價值를 갖고 있는 學問으로서 그 중요성이 認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會計의 Social科學性은 다음과 같은 觀點에서 파악될 수 있다.  
첫째, 會計는 주로 企業을 對象으로 하는데 企業은 社會集團의 하나이다. 둘째, 會計는 去來와 社會의 關係에 영향을 미치는 社會現象, 經濟現象을 다룬다. 셋째, 會計는 會計活動에 參여하는 人間에게 有用하고 意味 있는 知識을 提供한다. 會計는 情報의 源泉이 되고 있으며, 人間이 社會活動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必須의이고 有用한 資料가 된다.

위와 같은 會計의 Social科學性은 會計의 固有機能을 이해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會計의 固有機能은 去來의 記錄, 分類, 要約, 解釋, 報告하는 機能인데, 이들 機能도 결국은 人間生活과 社會活動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會計는 人間活動의 集合體이며, 社會發展에 큰 역할을 하는 企業의 經營活動을 測定·評價한다. 이러한 會計의 機能은 國家의 經濟的 富를 測定·評價할 수도 있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會計에 의하여 企業價值(value)

of a firm)를 評價할 수 있고 經營活動의 結果에 대한 業績評價(performance evaluation)를 할 수도 있다.

또 會計에서는 經營者의 意思決定에 필요한 會計情報률 提供해 줌으로써 企業資源의 效率的 配分과 管理, 經營計劃, 經營政策을 수립할 수도 있다. 意思決定會計는 情報의 有用性(usefulness)에 입각한 것이다. 이로써 會計의 目的是 “有用한 情報의 提供”으로 이해되어 會計情報理論이 성립된다. 최근 會計의 目的是 “財務諸表利用者가 經濟的 意思決定(economic decisions)을 하는데 있어서 有用한 情報를 提供하는데 있다”고 규정되고 있는데 바로 「會計의 情報提供機能」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sup>(7)</sup>

會計學이 社會科學이라는 빗째 이유는 會計가 國家經濟를 위해서 필요한 知識이라는 點이다. 이것은 앞서의 會計의 固有機能에서도 類推될 수 있는 것으로 會計라는 手段에 의하여 國家의 經濟的 富(economic wealth)를 記錄, 測定하고, 國民所得을 評價할 수 있으며 經濟計劃・國防計劃의 樹立에 이용되기도 한다. 또 企業活動을 規制하고, 評價政策, 社會厚生政策을 세우는 데도 寄與한다.

다섯째, 會計는 真實과 事實의 追求, 社會正義의 實現, 利害關係의 調整이라는 哲學的, 社會的, 規範的 目的을 갖는다. 이는 특히 社會的 資源의 適正配分과 企業資源의 效率的 配分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會計處理에 있어서 粉飾決算의 抑制, 會計監查에 있어서 適正性(fairness)의 檢證, 不正・誤謬의 摘發, 獨立性(independence)의 堅持는 傳統會計에서도 강조되어 왔던 會計의 規範(norm)이며, 倫理(ethics)였다.

리틀頓(A.C. Littleton)은 「Structure of Accounting」에서 會計의 真實性(truth in accounting)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會計의 真實性이란 “眞實의 發見(truth finding)과 真實의 表示(truth reflecting)로서, 會計의 中요한 機能이 되며, 會計士는 真實이 實體化되도록 努力할 義務가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會計에 道德的 側面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sup>(8)</sup>

최근의 社會會計(social accounting)의 대두는 會計學이 社會的 目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人間과 社會를 다루는 社會科學의 하나라는 點을 確信시켜 주는 會計學의 새로운 章이다. 會計學에서도 經濟學, 社會學과 마찬가지로 社會的 資源의 效率的 配分에 관심을 갖게 되고, 企業의 社會와 관련된 活動에 대한 社會的 評價(evaluation of social

(7) AICPA, 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 (1973), AICPA, APB Statement No. 4(1970), AAA,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1966)

(8) A.C. Littleton, Structure of Accounting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1953) p. 10.

performance)로써 公害問題와 같은 環境問題를 다루고, 人的資源會計(human resource accounting)로서 企業資源에서 가장 低評價된 人間의 價值를 再發見하려 하며, 企業의 社會意識支出(social awareness expenditures, 企業의 社會에 대한 援助로서, 예를 들면 醫療機關·慈善團體援助, 研究費·獎學金支給 등)을 공개하여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會計的으로 解決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會計學이 社會問題로 研究範圍를 넓히고 있다는 證左인 것이다.

여섯째, 會計學은 研究方法論上으로 社會科學으로서의 特性을 具備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傳統會計理論에서는 歸納的인 方向에서 會計理論을 定立하는 記述論의 色彩가 강하였으나, 現代會計理論에서는 規範的으로 論理의 體系化를 試圖하여 演繹的인 方向, 當爲의 方向으로 論理展開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會計學에서는 會計目的과 會計公準을 設定하여 會計理論構造(framework of accounting theory)를 확정하려 하고 있어 會計理論體系를 規範的·演繹的·情報理論의 研究方法에 의하여 形成하려 努力하고 있다.<sup>(9)</sup>

최근의 會計學은 他學問으로부터 研究方法論을 導入하여 理論展開를 試圖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學問으로서의 基盤을 굳혀 나가고 있다. 會計의 經驗的研究, 行動科學會計, 意思決定會計, 社會會計에서는 經濟學, 社會學, 心理學, 數學, 統計學, O.R., 人間關係論 등 諸學問의 知識을 採用하여 理論的 分析을 하고 現實問題를 解決하려 하고 있다. 會計의 經實際世界에서 論理(logic)를 테스트하는 科學的研究方法을 적용하고 있어 會計學은 社會科學으로서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특히 行動科學會計(behavioral accounting)에서는 他學問으로부터 研究方法論을 導入함으로써 汎科學의 接近方法(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試圖하고 있다.

이와 같이 會計學은 많은 社會科學의 特性을 갖고 있는 學問이다. 會計學은 社會科學의 定義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人間과 社會, 人間活動과 社會現象을 다루고 社會科學의 屬性과 研究方法論의 特色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會計에 대한 傳統的觀念은 計算的이고 記述的인 學問으로 이해되어 왔다.

會計는 단순히 去來의 記錄, 分類, 要約, 解釋, 報告하는 過程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動態的인 側面을 갖고 있으며, 理論的이고 科學的이며 좀더 範圍가 넓은 學問인 것이다.

(9) 1974年 발표된 FASB Discussion Memorandum의 "Conceptual Framework for Accounting and Reporting"에서는 會計目的→會計情報基準→會計概念→會計原則(基準)→會計實務의 순서로 會計理論의 階層的 構造(hierarchical structure of accounting theory)를 圖示하고 있다.

### III. 會計學의 學問的 性格

會計는 원래 量的情報(quantitative information)를 많이 다루고, 分介하고 元帳을 記入하여, 最終的으로는 財務諸表를 작성한다고 하는 節次的性格(procedural in nature)을 갖고 있다. 그래서 會計는 단순한 記錄業務(record-keeping)와 財務諸表의 作成이라는 世俗의 인目的(mundane objectives)에 充實하고 挑戰과 想像力이 없는 下級의 技術(low-level skill)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會計에는 理論이 있고 哲學的인 目的(phiosophical objectives)이 있으며, 規範의 인 理論(normative theories)과 合理的인 規則(rationalized rules)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會計學은 哲學化(phiosophize)될 수 있고 理論化(theorize)될 수 있으며, 理性的으로 判斷(judge)될 수 있고 熟考(deliberate)될 수 있으며, 創造(create)될 수 있는 學問이다. 計算의 인側面이 강한 會計實務에 있어서도 主觀的으로 判斷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論理와 理性에 의해 判斷되어야 한다. 真實과 事實의 追求, 適正表示(fair presentation)가 무엇인 지에 대해 意見이 對立될 수도 있는데 이는 모두 論理와 理性에 의해 解決되어야 한다.

비록 會計實務가 技術(Art)에 가까운 것이지만 會計理論의 發達은 科學의이며 論理에 입각한 것이었다.<sup>(10)</sup> 그러나 會計理論은 本質적으로 自然科學이나 數學의 原理와는 다르다. 會計原則(accounting principles)은 自然法則에 의하여 派生된 것이 아니고, 證明될 수도 없는 경우가 많다. 會計原則은 근본적으로 真理(truth)가 아니며 公理(axioms)도 아니다. 會計原則은 발견된 것이 아니며, 創造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會計原則은 發展(develop)시키고, 制度化(decree)된 것으로, 直觀(intuition), 權威(authority), 受容(acceptability)에 의하여 支持되고 正當化된 것이다.<sup>(11)</sup>

會計原則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意見의 一致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지만, 또 會計原則은 證明될 수도 없는 것이지만, 會計原則은 半宗教的 信念(quasi-religious dogmatism)으로서 信奉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결과 會計原則에 대한 贊成과 信賴는 有用性(usefulness), 公

(10) 美國公認會計士會에서는 1941年 會計(accounting)를 定義하면서 會計는 科學이라기 보다는 技術(Art)이라고 하였다 Accounting Terminology Bulletin No. 1 par. 9 그후 會計의 意義는 情報利用者를 위한 情報傳達過程(communication process, 1966年 美國會計學會의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情報利用者의 意思決定을 위한 情報提供의 서어비스活動(service activity, 1970年 美國公認會計士會의 APB Statement No. 4)으로 규정되었다.

(11) Donald E. Kieso and Jerry J. Weygandt, Intermediate Account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74) pp. 20-21.

正性(fairness), 合理性(reasonableness), 實施可能性(feasibility) 등의 諸概念과 基準을 근거로一般的으로 認定되고 受容되는 것이다. 여기서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이 會計實務에서 遵守되어야 할 規範이 될 수 있다 는 可能性을 찾아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모두가 認定하거나 잘 定義된 會計構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會計擔當者가一般的으로 認定할 수 있는 會計原則을 會計實務에 적용할 수 있는 會計理論의 基本的 土台는 다듬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會計學은 技術(art)이라고만 볼 수 없으며 科學(science) 특히 社會科學(social science)에 속한다는 것이 최근의 會計를 보는一般的見解이다. 원래의 傳統的 會計觀은 會計를 機械的·節次的·反復的·計算的 學問이라고 보아 왔다. 특히 會計學은 實務 속에서 발달된 것이기 때문에, 會計概念, 會計原則, 會計實務가 理論的體系를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會計에 科學性을 賦與하여 哲學的·規範的·論理的體系를 확립하려 하고 있다. 이는 科學으로서의 會計學을 발전시키는 努力의 一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科學의 特質이라고 할 수 있는 科學的 思考方法(scientific way of thinking)을 注入하고, 會計研究에 있어서도 主題에 대한 科學的研究態度(scientific attitude)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會計가 因果關係(cause and effect)에 의하여 體系化된 知識이기 때문에 그 科學性에 대해서는 疑問視되어 왔는데 科學的 思考方法과 研究態度를 취함으로써 科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會計學의 社會科學性에 대해서 강조하였지만, 會計學은 근본적으로 學問의 側面과 實務의 側面의 兩面性을 갖고 있다고 모츠(Robert K. Mautz)는 주장한다.<sup>(12)</sup> 그의 주장을敘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實務的側面(practical side)으로 會計原則이나 節次가 實務的으로 만족할 만한 것 이면, 이를 받아 들이는 實用的接近方法(pragmatic approach)을 취하는 입장이다. 둘째는, 學問的側面(academic side)으로, 會計의 理論的體系를 確立하기 위한 側面이다. 會計理論을 客觀的으로 研究(objective research)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연구조사하며, 實務의 인 고려나, 外部의 壓力에 대해서도 超然하는 입장이다.

모츠에 의하면 이 두 가지 側面중에서 會計學이 社會科學으로 되기 위해서는 學問的側面이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會計實務家(practitioners)들은 會計問題를 實用主

(12) Robert K. Mautz, "Accounting as a Social Science", Accounting Review, (April 1963) pp. 317  
-325.

主義(pragmatism)의 입장에서 解決하려 들기 때문에 社會科學者(social scientists)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른 社會科學에는 學問을 科學的으로 研究하는 會社科學者가 있기 마련이므로 會計學이 社會科學으로 認定받고,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社會科學者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會計學의 學問的 側面은 社會科學의 側面을 가리키는 것인므로, 會計學은 社會科學으로서의 側面과 實務的 側面이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모츠의 見解는 經營學이 社會科學인 동시에 實踐的인 學問으로서의 理論的 研究와 아울러 現實世界에 대한 分析과 應用을 兼하여야 한다는 兩面性의 主張論理와 一脈相通하는 것이다.

아무튼 會計學이 學問的 側面과 實務的 側面의 兩面性을 갖고 있으므로 이 두 側面의 會計界는 때로는 平行線을 그으며, 때로는 相互協助하며, 理論과 實務를 각각 발전시켜 왔다. 이는 美國의 代表的 會計學術誌의 編輯傾向에서도 알 수 있는데, Journal of Accountancy 와 CPA Journal은 實務的인 側面에서, Accounting Review와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는 學問的인 側面에서의 論文이 실리고 있다. 또 美國會計界의 兩大山脈이라고 할 수 있는 美國公認會計士會는 實務的 側面에서 美國會計學會는 學問的 側面에서 各種 報告書, 意見書, 研究報告書를 발표해 왔다.

그러므로 會計의 이러한 兩面性은 어느 한쪽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會計學은 점차적으로 記述的이고 計算的인 學問으로부터 脱皮하여 哲學的・論理的 理論追求를 하려 하고 보다 적극적인 價值判斷에 의한 規範的인 接近을 試圖함으로써 社會科學으로서의 位置를 墓固히 하고자 하는 것이 최근의 趨勢인 것이다. 그래서 會計學의 社會科學的 接近은 會計 實務에 영향을 주고 理論的 根據를 마련해 줌으로써, 會計理論과 實務의 發展에 貢獻하게 되는 것이다.

#### IV. 會計學과 隣接科學

會計學의 隣接科學은 經濟學, 經營學, 社會學, 心理學, 法學, 數學, 統計學, 工學, 컴퓨터學 등으로써 社會科學, 自然科學이 모두 포함된다. 會計學과 이들 隣接科學과의 關係를 說明하므로써, 隣接科學과 社會科學으로서의 會計學의 學問의 性格을 究明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會計學은 이들 隣接科學의 原理를 이용하여 會計理論과 實務를 설명하고 會計研究(accounting research)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會計學은 人間과 社會를 研究對象으로 하고, 人間生活의 向上과 社

會發展에 관해 研究하는 學問으로서 社會科學이라고 할 수 있다. 會計學은 自然科學보다는 社會科學性을 갖는 社會科學에 가까운 學問이다. 會計學에서는 自然科學의 哲理보다는 社會科學의 哲理를 따르며 自然科學을 問題解決이나 研究手段으로 쓴다. 尹錫詰教授가 말하는 自然科學은 自然哲學속에 內在하고 있는 自然認識이나 經驗認識, 自然現象속의 方向意志에 비추어 볼 때에 會計學과 遠心的으로 關係가 있을 뿐이다.<sup>(13)</sup> 그래서 自然科學이라고 할 수 있는 數學, 統計學, 工學은 단순히 會計問題의 解決과 會計研究의手段으로 쓰인다. 會計의 經驗的研究, 行動科學會計, 意思決定會計에는 이러한 自然科學의 識知이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財務會計, 管理會計, 會計監查 등 거의 모든 會計分野에 이용되고 있어 會計學과 自然科學의 交流는 한층 더 활발해졌다.

會計學은 社會科學중에서도 經營學, 經濟學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sup>(14)</sup> 社會學, 心理學, 法學은 會計學과 自然科學의 관계처럼 遠心的인 關係이며, 會計問題의 解決이나 研究手段에 쓰이는 面이 많다. 그러나 會計學의 이들 社會科學에 대한 관계는 行動科學會計에서 처럼 단순히 問題解決에 쓰이는 道具로서가 아니라 汎科學的(interdisciplinary)으로 統合(integrate)되어 學問分野의 새로운 장르를 形成할 수도 있다.

會計學의 隣接科學으로서 經營學은 아주 特異한 關係의 學問이다. 흔히 會計學이 企業을 研究對象으로 하고 企業의 經營狀態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經營學속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會計學은 經營學과 性格面에서 많은 다른 점이 있다.

經營學은 機能에 따라 보통 마아케팅, 生產管理, 人事管理, 財務管理, 會計學으로 나누어 그속에 會計學을 포함시키고 있다. 經營學은 企業 등 經濟的 實體의 構造, 機能, 活動을 原理的으로 包括的으로 설명하는 知識體系로서, 管理技術(management techniques)을 강조하고, 利潤動機(profit motive)를 管理의 目的으로 한다. 會計學은 管理技術이 라기 보다는 社會現象 또는 會計現象을 나타내는 純粹科學(pure science)에 가까운 것이며, 經營學처럼 應用科學(applied science)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經營學에서는 會計學을 이용하여 利潤을 目的으로 한 管理技術을 다른 점에서 會計學을手段으로 이용하고 있다. 會計學중에서도 管理會計分野는 다른 經營學과 마찬가지로 管理技術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最近의 經營學에 대한 새로운 理解를 보면 經營學을 단순한 管理技術로 보기보다

(13) 尹錫詰: “自然科學과 社會科學이 交流해야 할 時代의 要請” 經營論集 第10卷 第4號 1976年 12月  
서울大 經營研究所, p.20.

(14) 리틀톤은 Structure of Accounting p.8에서 會計學과 가장 가까운 學問은 經濟學과 統計學이라 고 하였다. 그가 統計學과 가깝다고 한 것은 會計方法이 주로 計定(accounts)으로 이루어진 機構로서 企業의 多量의 去來를 計定分類에 따라 單純化한다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다.

는 社會性을 追求하는 學問으로 認識하여야 한다는 主張이 대두하고 있다. 즉 드러커(Peter F. Drucker)에 의하면, 企業을 하나의 社會機構(social institution)로 보고, 企業은 社會的 機構로서 社會的 要請인 「社會性」과 「營利性」을 調和的으로, 辨證法의 으로 同時에 追求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效果的인 經營管理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sup>(15)</sup> 그래서 드러커는 經營(management)을 「 사람」, 「課業」, 「責任」으로 과악하고 利潤과 같은 「經濟的 成果」와 보람과 같은 「精神的 成果」를 創造하는 가장 效果的인 道具나 規範으로 解釋하였다. 또 企業은 社會的 機關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利潤動機에 의한 「企業的 利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利潤 自體를 不純物視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드러커의 主張처럼 企業을 社會的 機關으로 보고, 企業의 社會性을 강조하고 社會性과 營利性을 調和的으로 追求하기 위한 管理技術을 經營으로 볼 때에, 經營學도 社會科學의 目的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社會學은 經營學을 學習하는데 基礎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會計가 企業의 言語(language of business)이기 때문이다. 經營學중에서도 財務管理나 證券論은 會計資料를 중심으로 한 理論이므로 會計學과 밀접한 관係을 갖고 있는 것은 自明하나, 최근의 學問發展을 보면 餘他의 經營學도 會計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人的資源會計는 人事管理와, 會計情報論은 시스템理論, 컴퓨터學과 관계가 있다.

위와 같이 會計學은 많은 社會科學과 自然科學을 隣接科學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어떤 學問보다도 經濟學과 가까운 關係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會計學과 經濟學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學者들이 言及하고 있다. 經濟學者인 보울딩(Kenneth E. Boulding)은 “會計學과 經濟學은 同一한 資料源泉 속에서 다른 商品을 만들어내는 異質的인 變生兒(uncongenial twin)”라고 하였다.<sup>(16)</sup> 한편 캔닝(J.B. Canning), 메이(George O. May), 컬쉬레사(H.S. Kulshrestha)는 “會計學은 類似한 問題를 다루나, 獨自의인 由來(independent origins)를 갖고 발달되어 왔으며, 相互協助的 關係에 있으나 어느 것이主流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sup>(17)</sup> 이들 學者의 發言으로 보아 會計學과 經濟學

(15) 드러커의 主張은 金東基教授의 칼럼 「經濟時評」(朝鮮日報, 1977年 10月 11日)에서 引用

(16) Kenneth E. Boulding, "Economics and Accounting: The Uncongenial Twins," Studies in Accounting Theory, edited by W.T. Baxter and Sidney Davidson (Homewood, Ill., Richard D. Irwin, Inc. 1962) pp. 44-55.

(17) J.B. Canning, The Economics of Accountancy (New York, The Ronald Press Co., 1929)  
George O. May, Twenty-Five Years of Accounting Responsibilities, 1911—1936: Essays and Discussions. Bishop C. Hunt, (ed.) (New York, American Institute of Publishing Co. 1936)  
H.S. Kulshrestha, "Accounting as a Social Science", The Chartered Accountant (India), October 1964, pp. 208-211.

은 相互密接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發展過程에 있어서나 觀心의 對象을 다루는데 있어서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會計學과 經濟學의 共通點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로, 會計學과 經濟學은 모두 企業活動에 대해서 研究한다. 이들은 모두 人間의 經濟活動(economic activities)에 대해서 研究한다. 다른 點이 있다면 會計學은 企業的인 次元인 micro level에서, 經濟學은 國家的 次元인 macro level에서 企業活動을 研究한다. 따라서 會計學과 經濟學은 企業에 관한 類似한 變數(variables)를 다루며, 이들 變數가 利益(profit)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게 된다. 더 나아가서 企業活動은 社會活動이 되는데, 社會學이나 經濟學은 모두 社會現象을 다루며, 經濟學은 이를 經濟現象, 社會學은 會計現象이라고 부른다.

둘째로, 社會學과 經濟學에 이용되는 概念(concepts)에는 共通的인 것이 많다. 價值(value), 利益(income), 資本(capital), 價格(price)은 社會學이나 經濟學에서 모두 觀心을 表明하는 概念들이다. 예를 들면, 經濟學者인 히스(J.R. Hicks), 시몬스(H.C. Simons), 린달(E. Lindahl), 칼도어(N. Kaldor)는 利益概念을, 피셔(I. Fisher), 피구(A.C. Pigou), 하이에크(F.A. Hayek)는 資本概念에 관해 著述을 한 바 있다.<sup>(18)</sup>

이들 概念중에서도 會計學上의 利益(accounting income)과 經濟學上의 利益(economic income)의 差異에 대해서는 많은 學者들이 觀心을 보여왔다. 이것은 利益의 測定方法에서의 差異에서 뿐만 아니라 會計學者와 經濟學者가 同一한 事物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觀點(viewpoint)의 差異에서 온 것이다.

會計學上의 利益은 損益計算書에서 산출되는 利益으로 經濟學上의 利益에 비하여 貨幣性利益(monetary income)만을 강조하며 過去實績 위주의 過去指向的(past-oriented)이다. 會計上으로는 客觀的이고 立證可能한(objective and verifiable) 歷史原價(historical cost)만을 중요시 하여 未來의 推定價値를 무시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営業權도 資產으로 계상되지 않을 수도 있다.

經濟學上의 利益은 흔히 히스(J.R.Hicks)의 1946年 「Value and Capital」에 나온 利益概念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利益概念에는 貨幣性利益(monetary income) 뿐만 아니라 資產의 實的要素(qualitative features) 변동에 의한 心的利益(psychic income)이 포함되며, 未來의 推定에 의한 價值增大를 고려함으로써 未來指向的(future-oriented)이다.

아무튼 利益은 원래 會計學上의 概念이지만 經濟學에서는 市場組織에 活氣를 불어 넣는

(18) 이들이 著述한 著書의 拔萃錄은 R.H. Parker and G.C. Harcourt, Readings in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Incom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에 실려 있다.

動機로서의 經濟學上의 基礎概念이 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會計學과의 相互關係로서 會計學과 經濟學의 交流에 관한 것이다. 理論的 說明이나 研究方法에 있어서 相互依存의이고 利用되는 概念이 동일한 수가 많다. 會計學은 經濟學의 概念을 이용하고, 經濟學은 會計學의 概念을 이용하는 것이다. 會計學은 會計問題의 解決에 經濟學의 概念을 援用하고, 經濟學에서는 人間의 經濟活動을 연구하기 위하여 좀 더 實現的인 資料(realistic data)를 會計로부터 얻지 않으면 안된다.

成果測定의 指標로서 흔히 이용되는 生產性(productivity)은 “最少의 犠牲으로서 最大의 効果를 올린다”는 經濟原則(principles of economics)을 적용한 것이다. 그외에 會計學이나 經濟學에 共通의으로 이용되는 概念에는 限界原價(marginal cost), 現價(present value), 資本의 還元價值와 같은 것이 있다. 經濟學의 產業聯關分析은 會計學의 國民所得會計(national income accounting)에 관련되고 있다. 또 人的資源會計, cost benefit analysis는 會計學이나 經濟學에서 모두 觀心을 갖고 있는 問題이다.

그밖에 會計學과 經濟學의 共同課題로서 利益(利潤)의 追求, 富(wealth)의 增大, 福祉向上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지만 이들 課題은 經營學이나 다른 社會科學에서도 共通의인 것이다.

그러면 같은 社會科學인 會計學과 經濟學의 差異는 어떤 것일까? 會計學과 經濟學은 獨自의으로 발전해 오면서 여러가지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會計學과 經濟學의 差異는 時間的眺望(time perspective)에서 생긴다. 經濟學은 未來를 指向하여 未來를 다루는 學問이고, 會計學은 歷史的 資料의 記述에 置重한다. 그래서 經濟學에서는 過去(past)는 죽어버린 것이고 會計學에서는 未來(future)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假想한다. 그렇다고 해서 會計學과 經濟學의 關係는 絶緣된 것이 아니며,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가지 共同觀心事와 研究課題를 갖고 있다. 時間的眺望의 差異는 會計學者와 經濟學者가 事物을 보는 觀點(viewpoint)의 差異인 것이다.

時間的眺望의 差異는 會計學과 經濟學에 여러가지 差異를 나타내게 한다. 極大化理論(theory of maximization)을 예로 들어 보자.<sup>(19)</sup>

會計學에서 價格(price)은 資料(datum)가 되고 常數(constant)로 생각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經濟學에서는 變數(variables)가 된다. 經濟學者들은 다른 價格이었다면 經濟狀態가 어떻게 變化되었을 것인지를 대해 自問하는 수가 많다. 그래서 經濟學者들은 最善의 行爲類型(best pattern of behavior)을 假定하여 企業人은 利益을 極大化하고자 하며, 經濟學者

(19) Boulding, op. cit.

는 未來에 대한 最善의豫測을 하여 企業의 經濟活動을 豫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極大化理論은 經濟學에서 限界分析(marginal analysis)으로 開花되어 限界效用의 法則과 같은 微視經濟學의 理論이 生成되었고 會計學에서는 이러한 經濟理論을 導入하여 差額原價(differential cost) 또는 增分原價(incremental cost)를 原價會計나 管理會計에서 다루어 代替案의 選擇 등 意思決定에 이용한다.

會計學과 經濟學의 差異는 時間的 肌望 이외에도 여러가지 觀點에서 그 差異를 顯거할 수 있지만 本稿에서는 이 이상의 觀點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앞서 叙述한 利益概念의 差異 뿐만 아니라 原價·價值上の 差異 등도 顯거하는 學者도 있다.<sup>(20)</sup>

지금까지 會計學과 가장 가까운 社會科學인 經濟學을 중심으로 會計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經經濟學은 會計學의 學問의 發展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쳤는데, 헨드릭슨(Eldon S. Hendriksen)에 의하면, 1930年 이후 1960年까지의 會計發達에 있어서 經濟學이 會計學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sup>(21)</sup> 經濟理論의 영향은 주로 原價會計, 資產의 本質과 評價, 利益決定(income determination), 物價變動會計에 관한 것으로, 클라크(J.M. Clark), 캔닝(J. B. Canning), 스위니(H.W. Sweeny) 등의 經濟學者들이 會計에 관련된 著述을 하였다. 최근에도 經濟學者들은 會計問題에 대해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히스, 린달, 피구 등 외에도 에드워드스(Edgar O. Edwards), 벨(Philip W. Bell), 보울딩(Kenneth E. Boulding) 등이 經濟學者이면서도 會計問題를 다루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會計學은 이제 獨자적으로만 발전해 나갈 수 없으며 다른 社會科學 自然科學의 概念, 原理, 哲學을 이용하고 한편 會計學은 固有의 會計知識을 이들 科學에 普及시켜 他學問을 發展시키는데 寄與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學問研究方法은 오늘날에 있어서 모든 學問의 發展에 있어서 共通의 現象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會計學의 發展은 隣接科學의 發展에도 영향을 미치고 隣接科學의 發展은 會計學의 發展에도 영향을 끼쳐 會計學은 항상 새로워지는 學問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箍으로써 會計學은 實務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社會科學과 隊列을 같이 하는 學問이 될 것이다.

(20) 예를 들면, David Solomons, "Economic and Accounting Concepts of Cost and Value", Modern Accounting Theory, Morton Backer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6)

(21) Eldon S. Hendriksen, Accounting Theory, 3rd Edition (Homewood, Ill., Richard D. Irwin, Inc. 1977) pp. 61-62.

## V. 結 語

「會計學이 社會科學인가?」라는 疑問의 題起로부터 시작된 本稿는 愚問賢答式의 論文이 될 셈이다. 사실 그 解答은 自明한 것이고, 이 論文 자체가 賢答을 叙述했느냐 하는데에는 자신을 가질 수 없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에게 위의 質問을 던져 보았을 때에 會計學을 社會科學이라고 自信있게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14世記 이태리 빠치올리(Pacioli)에서 시작된 複式簿記의 歷史로부터 會計=簿記라는 算式이 항상 우리들의 腦裡에서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會計는 機械的・節次的・反復的・計算的인 技術로 생각되었으며 理論보다는 實務가 강조되었다. 會計는 비록 學問的側面과 實務的側面으로 兩分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實務的側面이 너무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學問的側面에 초점을 맞추어 社會科學으로서의 會計學을 充明해 보려고 하였다.

會計學의 社會科學性을 考察하기 위하여 社會科學의 特性과 研究方法을 살펴보고, 會計學의 社會科學의 特質을 열거해 보았으며, 會計學 자체의 學問의 性格을 探究해 보고, 마지막으로 會計學의 隣接科學과의 關係를 설명하였다.

이제 會計學은 去來의 記錄, 分類, 要約, 報告, 解釋하는 傳統的인 會計機能으로부터 脫皮하여 會計學은 人間活動과 社會現象에 관해 연구하는 社會科學의 하나로서 他社會科學과 함께 社會科學의 窮極的인 目標인 社會의 一員으로서의 人間의 福祉向上(well-being of man)이라는 共同目標를 向하여 共同의 努력을 기울여 社會科學으로서의 位置를 確固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 他社會科學으로부터 概念, 原理, 哲學을 받아 들여 會計學을 하나의 道具로서, 보다 科學的인 普遍化의 原理를 追求하며, 論理的인 理論展開를 試圖하고, 보다 離析적인 價值判斷에 의하여 規範的인 接近을 하여야 할 것이다. 會計概念의 定立, 會計理論構造의 確立, 會計研究方法論의 開發과 최근의 社會會計, 行動科學會計는 會計의 새로운 次元을 向한 시작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會計學은 社會科學이며, 社會科學으로 存立하기 위해서 實務를 발전시키는 한편 學問으로서의 會計學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